

흑산공항 개발 면적만큼 국립공원 지정안 제시

신안군, 가거도·만재도·하태도 일부 대체지역 제공 검토 전남도 타당성 검토 후 하반기 국립공원위에 재심 신청

신안군과 전남도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5년째 지지부진한 흑산공항의 돌고래를 마련하기 위해 '공항 개발 면적만큼 국립공원 대체지역을 제공'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흑산공항으로 개발되는 면적만큼 환경부가 가거도, 만재도, 하태도 등의 일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안군의 이 같은 제안에 전남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올 하반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다.

12일 신안군, 전남도 등에 따르면 환경

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 2018년 10월 이후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관련 국립공원 추가 지정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협의중이다.

신안군은 흑산공항으로 인해 흑산도 내 68만3000㎡의 면적에 대한 개발이 불가피한 만큼 국립공원이 아닌 하태도, 가거도, 만재도 등의 같은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안을 전남도와 협의해 환경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함께 추진된 울릉공

항이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항하는데 흑산공항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해 이 같은 제안을 구상하게 됐다"며 "환경부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해줄 명분을 제공하고, 서둘러 흑산공항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이 같은 신안군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초 2020년 개항 예정이었던 흑산공항은 지난 2016년부터 흑산공항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흑산공항에 반대해온 민간위원 4명이 교체된 것 등을 계기로 전남도는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잠정 중단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

회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올 하반기에 재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흑산공항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사업비 1833억원을 들여 흑산도 부지에 1.2km 길이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을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자까지 선정할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안군이 새로운 제안을 제시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자가 서류를 보완하려면 올 하반기에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 시도지사 지지율 첫 1위

3.1%포인트 차 선두 김영록 전남지사 2위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선 7기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율 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 민선 7기 조사 이래 줄곧 1위를 달려왔던 김영록 지사는 10개월만에 2위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4~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 시장의 지지율은 60.9%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시장만 유일하게 60%대를 기록했다.

이 시장은 전월 대비 2.7% 포인트 오르며 민선 7기 조사(2018년 7월 이후)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줄곧 1위를 지켰던 김영록 지사는 57.8%로 한 단계 내려와 2위를 기록했다. 전남 조사에서는 김 지사가 58.3%로, 이 시장(58.2%)을 근소한 차이인 0.1%포인트 앞서면서 1위를 지켰지만, 한 달 만에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 시장은 취임 초기 도시철도 2호선 논란, 광주형 일자리 사업 부진 등으로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이러한 해묵은 현안 사업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매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에 나서는 등 민생 경제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과 접촉을 늘리면서 1위에 올라 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장과 김 지사에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가 55.0%로 3위를 이어갔다. 다음으로 강원 최문순 지사(51.8%) 4위, 충북 이시종 지사(51.2%) 5위, 세종 이춘희 시장(50.5%) 6위를 기록했다. 이어 제주 원희룡 지사(49.4%), 전북 송하진 지사(49.3%), 서울 박원순 시장(48.2%), 대구 권영진 시장(46.8%), 인천 박남춘 시장(45.0%), 경기도재명 지사(44.9%) 순이었다. 충남 양승조 지사가 44.6%로 13위를 차지했으며, 부산 오거돈 시장 42.5%, 경남 김경수 지사 41.5%, 대전 허태정 시장 40.6%, 울산 송철호 시장 32.1%로 뒤를 이었다. 전체 시도지사 평균 지지율은 47.8%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높았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무등산 정상개방...1만여명 봄 정취 만끽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가 열린 11일 오전 1만여명의 탐방객들이 정상에 올라 무등산의 봄을 감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22년 된 소방헬기 바꾼다

응급의료서비스 갖춘 신형 헬기 230억 들여...2022년 운용

노후화로 성능과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광주 소방헬기가 EMS(응급의료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s) 장비가 탑재된 신형으로 교체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22년이 지나 노후화돼 안정성과 기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소방헬기를 신형 다목적 중·대형 헬기로 교체를 추진중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내년 본 예산에 사업비 230억원(국비 115억원·시비 115억원)을 들여 14인승 이상, 최대 이륙 중량 4.3t 이상 성능을 갖춘 중·대형 헬기를 구매할 계획이다.

신형 헬기는 답수 용량이 현재 680 l에서 3000 l로 늘어나고 최대 항속거리 500km 이상, 최대 순항속도 시속 240km 이상의 성능을 갖추게 된다. 특히 신형 소방헬기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운송이 잦은 만큼 응급환자 응급처치에 필요한 전문 EMS 장비 탑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광주시 소방헬기는 기령이 무려 22년이 된데다, 운항시간도 2880시간에 이르는 등 노후화로 안정성과 기동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3년간 불시 정비만 24회에 달하고 정비를 이유로 76일이나 기동하지 못했다. 특히, 대형 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를 탑재할 수 없고 답수 인원이 탑승하기 어려운데다 야간 기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었다. 또한, 돌풍에 취약해 산악 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됐고, 답수 용량이 적어 산불 진화에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응성기록장치, 비행기록장치, 비상부유 장치 등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했고 연료 탑재량이 부족해 장거리 운송에도 적합하지 않다.

광주시는 지난 3월 헬기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공역재정관리계획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해 2022년 4월부터 헬기를 운용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반쪽' 공모 되려나

광주전남연구원, 여수·광양 이의신청 받아들이지 않기로...보이콧 움직임

전남도가 '특정지역 선정을 위한 들러리 공모'라는 비판이 제기된 '동부권 통합청사' 후보지 평가 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광주일보 5월 10일자 5면>

공모에 나서려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례적으로 이의신청서까지 내는 등 '잡음'이 일면서 전남도가 입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까지 의뢰한 게 무색하게 됐다. 특히 청사 유치에 나서려던 자치단체들이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동부권 통합청사'가 납득할만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해 지역인 '통합'은 커녕, '분열'만 일으키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10일 평가기준 위원회를 열고 여수·광양시의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후보지 평가기준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심사숙고해서 만든 기준을 변경하면 오히려

공정성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오는 17일까지 청사 후보지 신청을 접수받아 27일 현지 평가를 거친 뒤 청사 입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광양 등은 "현재 기준대로라면 답이 뻔한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며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칫 '반쪽짜리' 공모가 될 형편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라며 "13일 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수시는 청사 후보지 평가 기준과 관련, "토지매입현황 및 사용승락서 점수를 필수서류로 할 경우 사전 투기를 조장하고, 시유지를 확보한 특정 시에 유리하다"는 이유 등을 포함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광양시도 순천·여수·광양 등 3개 시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다시 마련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국립에코난대사물원 공모'의 경우 5개 지자체가 도전해 비슷한 평가 절차를 거쳤음에도, 반발과 같은 잡음이 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치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이의 눈에는...

잠깐 한눈 파는 사이 생기는 어린이 감전사고, 주변 곳곳에 숨어있는 사고의 위험들...
호기심이 가득한 우리 아이들 -
엄마·아빠의 관심과 전기안전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알고 있었나?

어린이 감전사고 중 전기감전사고 다음으로 높다는 사실
전기감전사고(1,075명, 38.3%)
어린이 감전사고(320명, 11.2%)

가정 내 전기 콘센트가 원인!

어린이 감전사고 중 5세미만 영유아의 피해가 77%를 차지하고, 대부분이 가정 내 콘센트에 의한 감전사고라고 합니다.

사고 발생경우 가장인 경우(281명, 37.8%)
감전사고 어린이 중 5세 미만 비율(247명, 77.2%)
원인이 콘센트인 사고 비율(207명, 64.7%)
※ 최근 5년간(2012~2016년) 전체 감전사고 인원 2,849명

우리 아이 전기 안전습관 완전정복

- 01 부모의 안전습관은 곧 자녀의 안전습관입니다.
- 02 젓가락, 막대 등으로 콘센트에 강난치 않도록 해주세요.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 감전사하는 사고가 많음)
- 03 콘센트 안전커버 사용을 생활화 해주세요.
- 04 가전제품 전선을 잡아당기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 05 휴대용 충전기 등을 잃어버렸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 06 아기목욕은 멀티탭 주위에서 멀리 떨어져서 해주세요.
- 07 젓은 손으로 전기포트, 소독기 등 가전제품을 만지면 안돼요
- 08 입간편, 맨홀뚜껑, 가로·신호등 근처에 접근하지 않게 해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 **KESCO 한국전기안전공사**

